대학가 소식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명사 초청 '印-아세안' 특강
김영선 전 한-아세안 사무총장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인도연구소 인문한국 플러스(HK+) 사업단이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본관 109호에서 김영선 전 한-아세안 센터 사무총장(사진)을 초청해 '신남방정책과 한국의 인도·아세안 관계'를 주제로 명사 초청특강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인도연구소 HK+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상명대 의류학과는 지난 7일 서울캠퍼스 미래백년관에서 '2019 졸업패션쇼'를 개최했다. /상명대

상명대 의류학과
'2019 졸업패션쇼' 성료

상명대학교 의류학과는 지난 7일 오후 서울캠퍼스 미래백년관 갤러리월해에서 '2019 졸업패션쇼'를 개최했다.

올해 18회를 맞는 이번 패션쇼는 'FRISM'를 주제로 하나의 광선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다양한 색의 광선으로 분해되는 현상을 뒤집어 '여러 색이 한데 모여 한줄기의 빛을 이룬다(Various possibilities become a ray light)'는 의미를 담았다.

경희사이버대 호텔·레스토랑 경영학과
오프라인 '커핑 세미나' 진행

경희사이버대학교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는 이은용 학과장의 '커피바리스타와티소믈리에의 이해' 교과와 교양학부 과목인 '카페와 맥주, 와인이야기' 수업과 연계한 오프라인 세미나를 지난 지난달 22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수업으로는 한계가 있는 분야 중 하나인 커핑을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세미나는 온라인에서 유명 카페로 알려진 필동의 카페 '딸깍발이'에서 약 3시간 동안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호텔외식MBA 겸임교수로 재직중인 김정욱 딸깍발이 대표의 로스팅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인천재능대
오늘 11차 국가교육회의 개최

인천재능대학교는 제11차 국가교육회의가 10일 대학 본관 4층 이벤트홀에서 진행된다고 9일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2017년 12월 출범한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과 교육거버넌스 개편 등을 논의하는 기구다.

올해 2030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준비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번 11차 회의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이뤄진다. /한용수 기자

서울교대 졸업생·재학생, 여학생 등급 매기고 단톡방서 성희롱
"현직·예비교사 18명 조사"… 교권 박탈되나

서울시교육청, 사안조사 실시
현직 7명·대기자 11명 등 24명

"집단 성희롱 심각한 사안
엄정한 후속 처리할 것"

#. 졸업생A: OO아 방금 여자친구랑 과방에서 뭐했음? / 재학생A: 엇 제가 카메라 설치해놨었는데 / 재학생B:이상한 냄새 나던데 과방에서 / 재학생A:이따찾으러 갈께요 에스카드^^(서울교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참여하는 카톡 단체 대화 발췌)
#. 졸업생B: 겉모습 중3인 초5 여자애가.... 나지막하게 (욕설)!이라고 한다. 이때의 해결책은? / 졸업생C: 욕쓰면 조져야함 다시 말해보라고 / 졸업생B: 근데 이뻐서 좀... 저 이쁜애한테 말못하는거 아시면서(서울교대 졸업생 카톡 단체 대화 발췌)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대 졸업 현직 교사와 교사 임용을 앞둔 재학생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신입생 대면식에서 여학생 얼굴과 몸매에 등급을 매기는 등 성희롱한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감사(조사)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 교권 박탈 등 중징계가 내려질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교대 남학생 집단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 관련 현직 교사 등에 대한 사안 조사를 10일부터 벌여 엄정한 후속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고, 특히 (예비)교사로서의 높은 성감수성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사안 조사에 앞서 지난달 서울교대 측으로부터 관련 졸업생 실명 명단과 자체 사안 조사 결과와 증빙자료를 넘겨받았고, 후속 대책 회의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후속 처리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관련 자료 검토와 감사를 포함한 후속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서울교대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사진과 개인정보가 담긴 책자를 당사자 동의 없이 만들고, 이를 신입생 대면식 때 여학생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온데 대해 학교 차원의 조사를 벌여 재학생 21명을 징계하고 이번 조사 대상인 졸업생 명단을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 징계를 받은 재학생 일부는 교육 실습(교생)에 참여할 수 없어 졸업이 1년 가량 늦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대상은 성희롱에 연루된 현직교사 7명과 임용시험에 합격했으나 아직 학교 발령을 받지 못한 임용 대기자 11명, 임용시험 합격 기록이 없어 현황 파악이 안되는 6명 등 24명이다. 임용 대기자의 경우 현직교사와 동일하게 조사하되, 본인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이번 성희롱 사건이 불거진데 따라 신규 교사 임용 전 연수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고, 예비교사인 교대생에 대한 성희롱 재발 방지와 성인지 감수성 신장, 성희롱 예방을 위해 서울교대 측과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잘못된 관습과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행한 집단 성희롱 사안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를 통해 엄정한 후속 처리를 할 예정"이라며 "현직 교원에 대한 성희롱 예방과 성인지 감수성 신장 연수를 강화해 성평등 의식을 갖추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성적 부정청탁·채용비리 신고하세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 설치
오늘부터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
검·경·감사원 등 수사기관 공조

사립학교내 벌어지는 횡령과 회계부정, 채용비리,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 사립학교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가 설치되고 2개월간 특별신고기간이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교육부는 사학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0일부터 8월 9일까지 두 달간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는 국민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에 설치되며 대검찰청·경찰청·감사원·국세청 등 주요 수사·조사기관도 참여한다.

신고대상은 교비·법인회계의 사적 유용·횡령이나 부적정 처리 등 회계부정과 이사장·교장이 친족 등 자격없는 자를 교직원으로 특혜 채용하는 등 부정채용, 성적·수행평가 등 업무 관련 부정청탁·금품수수,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학사운영 비리 등 사립학교와 학교법인 관련 부패·비리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와 교육부 조사관의 사실 확인 후 비위 정도를 고려해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에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해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게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내용과 신고자 신상정보 등을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다시마 등 해조류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만든다

서울대-포스텍 공동연구팀

서울대 공대는 화학생물공학부 서상우 교수팀이 포스텍 화학공학과 정규열 교수팀과의 공동 연구로 석유자원을 대체할 해조류 기반의 친환경 바이오연료 및 화합물 고속 생산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지난 6일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전문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신호를 통해 공개됐다.

공동 연구팀은 석유자원을 대체할 원료로서 다시마를 비롯한 해조류에 착안, 알긴산이 포함된 해조류를 고속 대사할 수 있는 신종 미생물을 발굴하고 최적화된 유전자 조작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이를 토대로 미생물의 대사경로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해조류로부터 ▲에탄올(바이오연료) ▲2,3-부탄디올(플라스틱 원료) ▲라이코펜(생리활성물질) 등 다양한 화학제품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합성생물학 기반 인공 미생물 화학공장을 개발했다.

서상우 서울대 교수

정규열 포스텍 교수

특히 연구팀이 개발한 인공 미생물은 기존 대장균이나 효모 등 산업용 미생물과 비교해 다양한 바이오매스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배 이상 월등히 빠른 성장 속도와 바이오매스 전환 속도로, 해조류뿐 아니라 기존 포도당을 이용한 미생물 발효 공정에서도 획기적으로 효율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팀은 "빠른 속도로 원료를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전 세계에서 연구 중인 미생물 발효 공정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한용수 기자

동국대
내달 수험생 800명 대상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

동국대는 내달 13일과 14일 양일 간 서울캠퍼스에서 고교생을 대상으로 전형안내와 모의면접 프로그램인 '드림 패키지(Dream Package)'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20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을 대비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정보 및 모의면접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총 4차수로 진행되며, 각 차수별로 학생 200명(총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에서는 ▲2020학년도 동국대학교 입학전형 안내 ▲학생부종합전형 모의면접 진행 ▲'전형알리미 Dreamer'의 합격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모의면접 시 입학사정관이 직접 면접 참여학생의 자기소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하고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 종료 후에는 학생 개인별 피드백과 종합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입학사정관 및 동료 피드백을 제공해 객관적인 시점에서 면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특징이다.

강규영 입학처장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의면접은 2020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교육 의존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대입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참가신청은 10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전 10시까지 동국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한용수 기자